

## 한·멕시코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발렌틴 디에스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님,  
페르난도 카날레스 경제부 장관님,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맛있는 점心和 대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에 저는 폭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합의한 부분은 아마 양국의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폭스 대통령이 함께 대화하고 또 합의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상호간에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를 매우 친근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에는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두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이 아주 빛이 많았을 때 멕시코도 역시 빛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국이 외환위기를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을 때 역시 외환위기를 겪어서 IMF의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멕시코의 과거 불행했던 역사와 우리 한국의 불행했던 역사가 비슷했던 데서 호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한국 경제의 규모가 12위로 있다가 11위로 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11위가 됐다고 했더니 멕시코와 한국이 경제규모가 비슷해서 서로 앞서거나 뒤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하나 앞섰는데 또 언제 멕시코가 앞지를지 모른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것도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양국 간의 교류 역사를 보았더니 멕시코의 역대 대통령은 전부 한국을 다녀가셨고,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멕시코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제일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미국 시장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브릭스(BRICS)라든지, 중남미라든지, 그 밖에 여러 나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점차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시장에 인접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중남미 시장의 중심이자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하면 좀 적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또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폭스 대통령께서 한국을 다녀가신 것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21세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 교류 부문에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금년 여름에 양국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기해서 이제 양국 간에 많은 협약이 맺어지고, 또 협약은 아니라도 의미 있는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에 관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방문을 할 때 외교부 장관은 항상 같이 다니고,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은 때때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멕시코 방문에는 그분들 외에 과학기술 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도 함께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장관들이 가방 큰 것 들고 아주 부지런히 다니면서 대통령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양국 기업인 사이에서 경제 교류·협력, 투자 이런 일에 장애가 없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스 대통령께서는 농산물에서부터 자동차·에너지 산업, 그리고 IT 기술 등 제가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 교육, 문화교류, 그리고 정부혁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이 부문은 우리 한국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최첨단 선진국과 후발국가와의 사이에 끼어 있는, 너트크래커(nut-cracker)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는 결국 그것이 성공에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지난 경험에서 배울 것도 찾고, 또 우리도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학기술 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함께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술을 가진 제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좀더 앞선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외 공사를 수주하는 데 집중해 있었지만, 이제 점차 거기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외개발사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이 프로젝트 투자로 전환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금년 초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멕시코 정부가 도와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DB 가입을 계기로 이제 우리 건설업의 중남미 진출이 시작될 것이고, 또 그 밖에 다른 공공사업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개발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저렴하게 건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경영은 완전히 민간기업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공기업 모델로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무슨 불일이 있어 오신 모양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멕시코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유만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석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무슨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의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또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한번도 식민지로 지배해 보지 않은 멕시코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성공하고, 또 식민지 피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매우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큰소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격려하고 고무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